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지난 6개월간의 급격한 변동.. 여전히 불확실한 美 경제
- ◇ (초점)-호주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부각, 외인 원화채 투자전략 변화시키나
- ◇ (초점)-中 국채 WGBI 편입 가능성 반영한 위안화..변동성 노출된 원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미국 대법관 사망 및 후임자 선출을 놓고 시선이 끌리고 있는 미국 대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로이터/앨 드라고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2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72.3	-1.0%	-1.4%	-3.5%	유로	1.1630	-1.7%	3.7%	-2.3%
100엔 대비	1,111.7	0.2%	-4.4%	-4.4%	엔	105.60	-1.0%	2.9%	0.9%
유로 대비	1,365.7	1.0%	-5.3%	-1.3%	위안	6.8220	-0.8%	2.1%	-1.3%
위안 대비	172.05	0.0%	-3.7%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173.96	-1.7%	-4.8%	22.3%
코스피	2,278.79	-5.5%	3.7%	7.7%	나스닥	10,913.56	1.1%	21.6%	35.2%
코스닥	808.28	-9.1%	20.7%	-0.9%	S&P500	3,298.46	-0.6%	2.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7.59	-3.8%	-0.9%	15.8%
국고채 3Y	0.855%	-5.2bp	-50.5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25%	-7.3bp	-35.5bp	-40.4bp	미국채 2Y	0.131%	-1.0bp	-143.0bp	-93.7bp
국고채10Y	1.424%	-7.9bp	-25.9bp	-26.5bp	미국채 10Y	0.656%	-4.1bp	-125.4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25	-2.1%	-34.1%	34.5%	한국 5Y	27.1bp	4.9bp	6.0bp	-17.0bp
금(현물)	1,860.05	-4.6%	22.6%	18.3%	일본 5Y	16.3bp	0.7bp	-1.5bp	-4.0bp
TR상품지수	2,461.70	-1.4%	-1.0%	4.8%	중국 5Y	49.3bp	13.6bp	18.6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28일(월)>

- 금강원, 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기재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00), 확대 간부회의 (10:0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10:3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금강원,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12:00)
- 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16:00)
- 국민연금공단, 하반기 신규직원 90명 채용

<29일(화)>

- 국무회의
- 한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한은, 2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00)

<30일(수)>

- 추석 연휴

<10월 1일(목)>

- 추석
- 산업부, 9월 수출입 동향(09:00)

<2일(금)>

- 추석 연휴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28일(월)>

- 미국, 9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3:30)

<29일(화)>

- 일본, 9월 도쿄 CPI (08:30)
- 일본, BOJ 9월 16-17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공개 (08:50)

- 유로존, 9월 기업환경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 (18:00)
- 미국, 8월 도매 · 소매재고 (21:30)
- 미국, 7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30일(수)>

- 일본, 8월 산업생산 잠정치 · 소매판매 (08:50)
- 미국, 1차 대선 후보 토론 (10:00)
- 중국, 9월 NBS 제조업 · 비제조업 PMI (10:00)
-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9월 CPI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ADP 전국 고용동향 (21:15)
- 미국, 2분기 기업이익 수정치 · GDP 확정치 (21:30)
- 미국, 9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8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23:00)
- 일본, 8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0월 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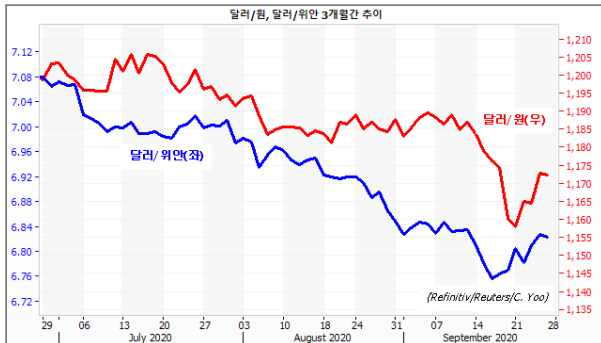
- 일본, 9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일본, 9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유로존, 9월 마킷 제조업 PMI 최종 (17:00)
-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 · 실업률 (18:00)
- 미국, 9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8월 개인소득 · 근원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마킷 제조업 PMI 최종 (22:45)
- 미국, 8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9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3:00)
- 중국, 대만, 홍콩 휴장

<2일(금)>

- 일본, 8월 실업률 (08:30)
- 일본, 9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미국, 9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1:30)
- 미국, 9월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2:45)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23:00)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23:00)
- 중국, 대만, 홍콩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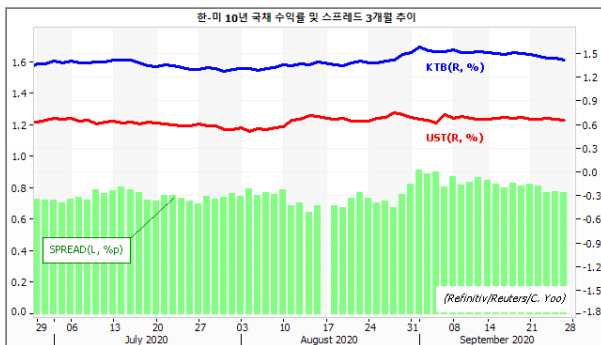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연휴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전망은 쉽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연휴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전망은 쉽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초점)-지난 6개월간의 급격한 변동..여전히 불확실한 美 경제

워싱턴 (로이터) - 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수백 만명이 실업 상태에 빠졌던 지난 봄,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미국이 급격한 붕괴와 수년간의 대규모 실업을 겪는 제 2의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새로운 학술 연구와 이번주 연준 관리들의 논평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의문스럽고 지난 봄 판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엄격한 시험대 위에 있다.

실업 급여 덕분에 풍부했던 가계 현금은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로 지금까지 기업들의 파산 및 폐업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실행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연준의 대규모 민간기업 자금조달 프로그램들은 기업들에게 큰 부채를 남길 수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논문에서 제레미 스타인 전 연준 이사를 포함한 저자들은 "판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규모를 감안할 때 앞으로 신용 등급 강등과 채무 불이행이 몰려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연준은 기업들이 8월까지 1조 7,0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한 긴급 신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회사채들이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구제하거나 지금까지 피해왔던 금융 위기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 관련 우려는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감소시키며, 심지어 새로운 외출제한 조치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은 "판데믹이 3개월 정도 이어졌더라면 괜찮았을 것이지만, 판데믹은 3개월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로이터에 "올 가을과 겨울에 판데믹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내 기본 생각"이라며 "미국의 일부 지역은 외출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것이다. 두 상황 모두 경제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급격한 변동,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롤러 코스터를 탄 듯한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3월과 4월에 급락한 후, 6월과 7월에는 경제를 재가동하고 반등했다. 그리고 부진한 정체기에 들어섰다.

초기 회복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었고, 최근 경제 지표들은 이를 설명해 준다. 3월 나온 대대적 지원 조치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개인 소득은 안정됐고, 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했다. 가계는 관대한 실업 급여 덕분에 실제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이번주 발표된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저축 및 당좌 예금 계좌 금액은 지난 3월보다 약 7,000억달러 더 늘었다.

하지만 이 돈도 결국 사용될 것이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같은 보조금 역시 사용될 것이고, 이는 경제가 완전히 재가동하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의회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6주 남은 미국 대선 전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에서 논의된 급여보호프로그램 관련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은 초기 기업들의 폐업을 막는데 성공했지만 판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프로그램을 쉽게 종료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은 단기기간의 외출제한 조치를 통해 강하고 빠른 경제 회복이 뒤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외출제한 조치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5월과 6월의 큰 개선 이후 경제 회복세는 둔화됐다"며 연방 정부의 기업영업 손실 보상 보험이나 무조건적인 보조금 등 제약이 더욱 완화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개인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의회 증언에서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진전은 지난 봄 실시된 연준의 조치 덕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이후 경제 지표 호조는 지원금, 실업 급여 등의 효과가 많이 반영됐다. 이 덕분에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점)-호주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부각, 외인 원화채 투자전략 변화시키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호주가 오는 10월 현재 0.25%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원화채권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한국과 호주 시장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만큼, 호주가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주 인하 전망과 함께 두드러진 외인 국채선물 매수

국내 채권시장 일부에선 지난 23일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와 호주의 10월 금리 인하 전망을 연결 짓는 분석도 나온다.

트리거가 된 것은 웨스트팩의 이코노미스트 빌 에반스가 발표한 통화정책 전망 보고서다. 에반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투자자에 보낸 보고서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내달 6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0.10%로 1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반스 이코노미스트의 수정 전망은 22일(현지시간) 나온 호주 중앙은행(RBA) 가이 드벨 부총재의 발언과 맞물리며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드벨 부총재는 기업 관계자들과의 화상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지만, RBA는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할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드벨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RBA 부총재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호주 이자율 시장에서 평판이 높은 에반스 이코노미스트가 10월 정책회의의 전망을 수정한 보고서를 내놓자 호주 채권시장은 이를 확실한 정책변화 신호로 인식했고 금리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호주 국채 3년물 금리는 웨스트팩의 보고서가 전해진 직후 7bp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인 0.14%까지 떨어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와 호주 금리 급락 시점과의 연계성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주 금리 급락 시점부터 국채선물 매수를 급격히 늘리며 장 초반 보합 수준이었던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23일 종가 기준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는 1만 7933계약, 10년 선물 순매수도 8388계약에 달했다.

A 시중은행 이자율 딜러는 "어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그때부터 국채선물 매수를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와 호주 금리 급락 시점이 겹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아시아에서 비슷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나라들이 호주, 뉴질랜드, 대만과 한국 정도인데 뉴질랜드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황에서 호주까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호주의 경우 코로나 19 파장이 큰 상황에서 환율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韓 연내 인하 가능성 작지만 외인 기대에 영향 줄 수도'

시장에선 한국과 호주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대해 각기 다른 강도의 경제봉쇄 조치를 취해 온 만큼, 두 나라의 통화정책 전망을 직접적으로 연계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고강도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더 완화적인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봉쇄 조치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통화당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더 무게를 두는 행보를 이어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호주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한국 등에 대한 롱 베팅을 강화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B 외은 지점 트레이딩 헤드는 "한국의 추가 정책 완화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며 "호주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전략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입장에서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국 시장금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다만 한은이 추가로 25bp를 인하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양적완화만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쉽게 결정을 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 모두 금리 하단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막혀 있는데, 여기서 호주가 먼저 움직이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한국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들 안 하니깐 우리도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 치고 나오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구나 호주는 한국과 한 묶음으로 보는 시장이다 보니 영향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中 국채 WGBI 편입 가능성 반영한 위안화.. 변동성 노출된 원화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중국 국채의 세계국채 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변동성을 한껏 키운 원화에 대한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FTSE 러셀은 오는 24일 WGBI 연례 리뷰에서 중국 국채의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중간 리뷰에서 FTSE 러셀은 당국의 시장접근성 개선 노력을 요구했고 이에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한 일련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모간스탠리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위안화는 최근 중국 경기 반등과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펀더멘털 개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이벤트에 따른 외인 자본유입 확대를 기대하며 강세압력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원화 절상폭이 확대된 결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19 사태를 반영하기 이전 레벨로 돌아왔다.

▲ 이래도 저래도 변동성 리스크

전방위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무덤덤했던 달러/원은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급부상하자 단숨에 올해 1월 수준인 1150 원대로 미끄러졌다. 물론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일부 걸린 데 따른 안도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화와 위안화의 강한 연결고리가 다시 확인됐다.

한 시장참가자는 "한국의 코로나 19 재확산세가 누그러지며 리스크가 완화된 게 확인되자 그간 반영하지 못했던 위안화 강세분을 원화가 뒤늦게 반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역외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위안화(CNH) 절상폭은 2%였는데 반해 원화는 0.3% 수준에 그쳤지만 9월 들어 원화는 약 2% 절상됐다.

위안화와 원화 두 통화의 강세 변동성이 대거 확대된 시점에서 중국의 WGBI 편입 결정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도 크다.

A 외환딜러는 "중국의 WGBI 편입은 거의 된다고 보고 긍정적 요인으로 지금까지 시장에 반영돼 왔다"고 말했다.

중국의 WGBI 편입 가능성에 위안화가 강세로 내달려온 상황에서 만약 편입 보류 결정이 난다면 위안화 강세 되돌림이 거칠게 나타나면서 원화 역시 약세 변동성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물론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쌍순환 정책에 따라 위안화 절상 기조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내 외국인 자본유입에 따른 위안화 강세 기대는 꺾일 수 있다.

다만 예상대로 중국의 WGBI 편입 결정이 난다면 위안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여전하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중국의 WGBI 편입시 외국인 자금의 중국 채권시장 유입은 안정적이고 완만한 위안화 강세 속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WGBI 편입 결정시 내년부터 18~24 개월에 걸쳐 최대 1,500 억달러까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BOA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채권지수 편입에 따른 자본 유입과 매력적인 금리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위안화(CNY) 절상 영향이 약 0.55%라면서 위안화 포워드에는 강세 압력이 덜 반영돼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위안화에 대한 강세 전망이 원화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최근 갑자기 중국의 WGBI 이슈가 떠올랐는데 원화가 위안화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같은 재료에 원화가 일방통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화가 위안화 블록에 속해있는 통화인 만큼 위안화와 함께 절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C은행의 외환딜러는 "원화가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시장의 판이 커진다"면서 "그렇다면 원화는 위안화와 함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중국의 WGBI 편입에도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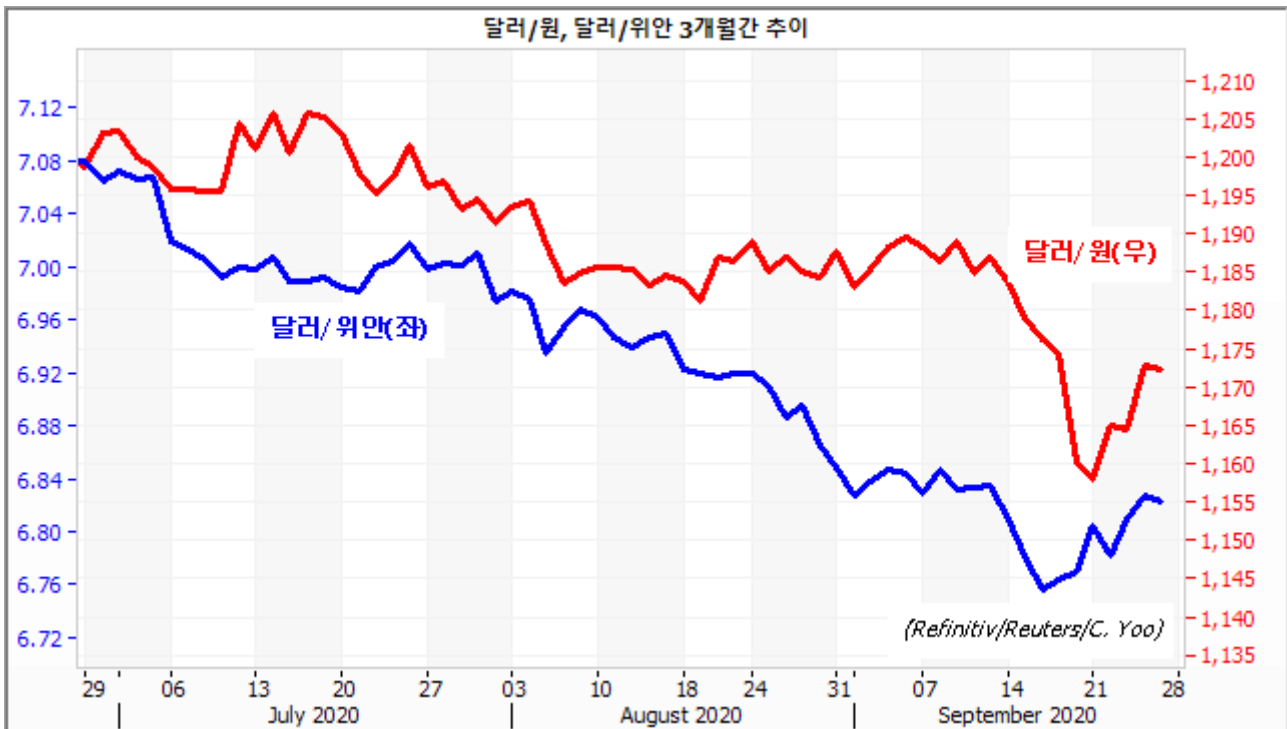
한 시장전문가는 "MSCI 리밸런싱은 같은 지수 안에서 중국의 편입 비중이 늘다보니 국내 자금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채권의 WGBI 편입은 이와 달라 당장 국내 채권 자금의 조정을 이끌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외국인이 중국 국채는 매수할 수 있지만, 선물은 내국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어 오히려 국내 채권 선물거래에 대한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GBI 편입은 결정으로 끝나는 재료가 아니라 이후 실제 자금 유입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재료로 위안화 강세 재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원화도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